

광주 명일리 주거지 발굴 보고

김 정 학

I 발굴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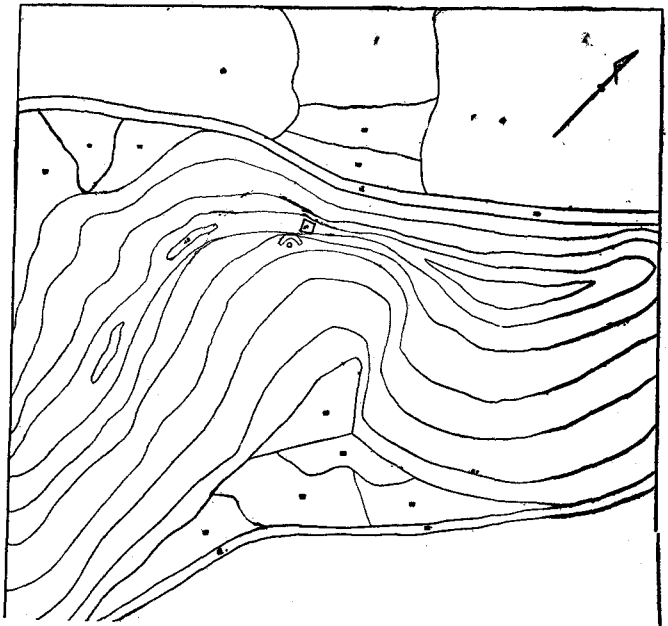
고려 대학교 인류·고고회는 연래로 한강 유역 선사 유적을 답사하여 오던바 1961년 6월 11일에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명일리(廣州郡 九川面 明逸里)의 낮은 야산(野山)에서 토기파편과 석기를 발견하여 부근을 조사한 결과 선사시대의 주거지인 듯 하므로 동월 13일에 발굴 허가 신청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허가가 나오기까지 이 유적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므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인류·고고회의 학생들로 하여금 교대로 수호하게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숙식에 불편한 것을 참으며 학생들의 노고(勞苦)는 큰 것이었다. 더우기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학업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발굴하여야 될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문교부에 상신하여 허가 절차에 특별 고려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행이 문교부의 후의로 동월 21일에 허가가 나왔다. 우리는 문교부 문화국 고적 보존과장과 고적 보존 위원회 위원 제씨의 특별한 배려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유적의 둘레는 한쪽이 약 6미터 가량의 거의 사방형에 가까운 것이며 그 서쪽 둘레의 선에 연하여 약 9개의 기둥 자리인 듯한 구멍이 발견되었다(사진 3 참조). 구멍의 크기는 가로 10센치, 세로 14센치, 깊이는 대략 29센치 가량을 약 50도 정도의 각도로 판 것이었다.

이 유적이 있는 산은 해발 42미터의 야산인데 현재 어린 소나무가 전산에 덮혀 있고, 이 유적의 서쪽에는 근년에 매장된 개인의 분묘가 있다. 6·25 동란 때에는 군인들이 이산에 참호를 뚫었다고 하며, 그 까닭인지 유적의 동남쪽은 원상이 많이 파괴된 듯 하여 기둥 자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유적의 표토면은 약간 경사진 것이었으며 표토에서 약 15센티·미터 가량에서 거의 절반 가량이 깨어진 토기가 나타났으며, 석기들은 표토로부터 약 2·3센티미터 가량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물이 포함된 지면은 대체로 동일한 지층으로 볼 것이다.

유적의 서북쪽으로 넓이 3미터, 길이 10미터 가량의 트렌치를 파고 유적의



동남쪽에는 네 곳에 좁은 트렌치를 파서, 인접한 주거지의 유무를 조사 하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주거지의 중심부에 가까운 두 곳에 목탄이 집중되어 흙이 검게 된데가 있었다 (사진 4 참조). 한 곳은 바로 그 위에 석검·석촉 등이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불 피우던 자리(爐址)가 이들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굴 작업은 6월 22일에 시작하여 텐트의 철거, 유물의 운반에 이르기까지 약 3일동안에 완료하였다. 이 발굴에 참가한 사람은 필자 외에 고려대학교 박물관 촉탁 채 병서 씨·순실대학 부교수 최영희 씨였고, 고려대학교 인류·고고회의 학생들이 협력하였다. 특히 안 영일군은 이 발굴에 있어서 주거지의 단서(端緒)와 기둥자리를 발견하고, 또 이 보고서를 쓰는데 유물의 정리, 제도등으로 도와 주어 그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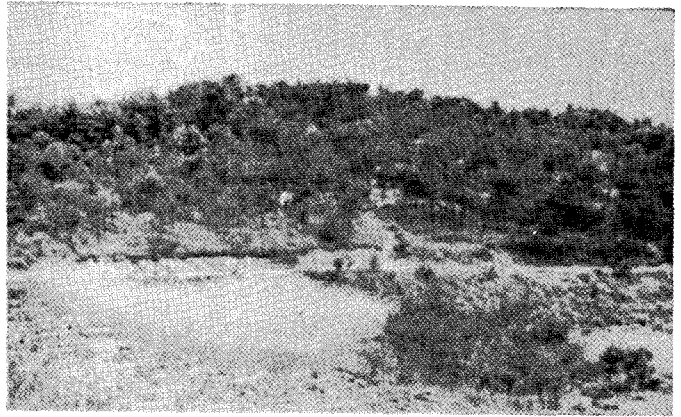
이 발굴 보고는 「고문화」지를 위하여 창출간에 썼으므로 극히 간략한 것이 되었다.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II 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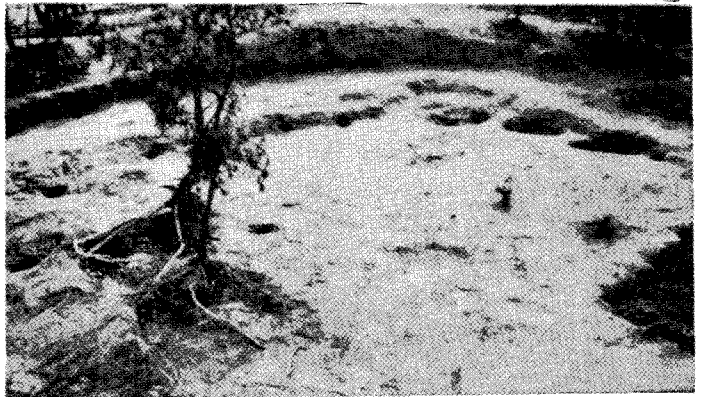
1. 마제 석검 2

석검 2점 중 하나는 점반암(粘板岩)으로 만든 것으로 거의 완형에 가깝다. 칼날의 끝 부분이 부러져서 현재의 길이는 18 센티·미터이다. 날의 중앙에 두드러진 선 (ridge, 일본인들의 특유한 한자 용어로는 鑄라고 한다) 이 달려서 단면은 능형(菱形)을 이루었다. 중앙의 능선(稜線)의 좌우에 파라홈(groove, 일본인들의 특유한 용어로는 이것을 樋이라고 한다)이 새겨지지 않은 형식의 것이다 (삼도참조, 29페이지). 관(關)의 넓이는 5 센티·미터이다. 자루가 2단(二段)으로 되어 있고, 자루의 맨끝도 역시 5 센티·미터이다. 다른 하나의 석검은 미제품(未製品)인데, 현암(頁岩)으로 만든 것이다. 날(刃部)의 중앙에 역시 능선이 보인다 (도판참조, 29페이지). 날의 끝 부분이 부러진 것인데 현재의 길이는 9.5 센티·미터이다, 이 석검은 관(關)이 넓어지지 않았고, 자루에 단(段)이 없는 형식의 것이다.

2. 석 촉 7



寫眞 1



寫眞 2

두개는 완형품이고, 네개는 파편, 하나는 미제품이다. 석축은 미제품 외에는 다 현암으로 만든 것인데, 「콘케이브」한 기저 (concave base)의 것이다. 완형의 석축 중 하나는 길이 4.9센티·미터이고, 다른 하나는 3.9센티·미터이다. 미제품은 점반암으로 만든 것인데 유경(有莖)의 형식이며, 길이 6.2센티·미터이다.

3. 숫 돌 4

숫돌 하나는 반암(斑岩, porphyry)으로 만든 것으로 장방형의 것이다. 길이 7센티·미터이고, 넓이 1.8센티·미터이다. 숫돌 두개는 분암(玢岩, porphyrite)으로 만든 것으로, 거의 제형(梯形)에 가까운 것이다. 길이는 각각 8.5센티·미터와 7센티·미터이고 넓이는 각각 5.5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제형에 가깝다. 사암(砂岩)으로 만든 것으로 길이 7.5센티·미터에 넓이가 3.9센티·미터이다.

4. 교 석(敲石) 1

이것은 주거지의 거의 중앙에 놓여 있던 것인데, 화강 편마암(花崗片麻岩)으로서 길이 40센티·미터, 넓이 25센티·미터의 제형에 가까운 판석(板石)이다. 아마 교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5. 토 기

토기는 밑에서 배까지 남은 항아리 모양의 것 하나와 밑만 남은 것 하나와 그밖에 파편이 약간 출토 되었다. 밑은 다 평평한 밑(flat bottom)이며, 배는 곡선(曲線)을 보이는 것이다. 제일 큰 토기의 밑의 지름은 16.6센티·미터에 배의 지름은 45센티·미터이고, 작은 토기의 밑의 지름은 12.6센티·미터이다. 입술의 형태를 알 수 있는 파편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쳐진 입술(everted lip)이고, 다른 하나는 큰 곡선을 가진 배에 달린 약간 내향 입술(inverted lip)이다.

토기의 태토(胎土)는 대단히 성근 것으로서 현암·석영(石英)·장석(長石)·운모(雲母)등이 많이 섞여 있다. 소성도(燒成度)는 낮으며, 표면은 붉으스레한 흙빛을 나타내고 있다. 벽 두께는 1센티·미터 내외의 비교적 두터운 것이다. 도차(陶車)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 중에는 극히 소수이나, 태토가 대단히 부드럽고, 살이 얇고 비교적 소성도가 높은 것이 있다. 빛도 회백색(灰白色)·흑색·자색(赭色)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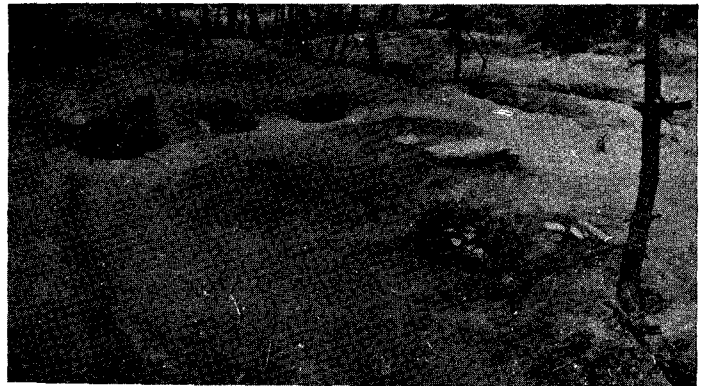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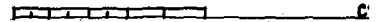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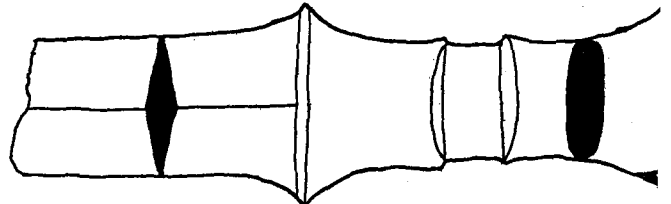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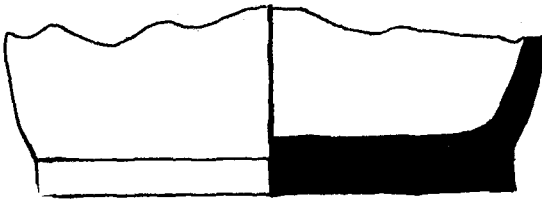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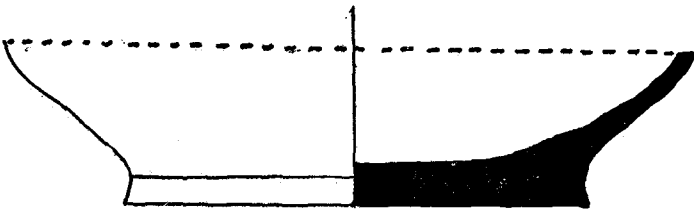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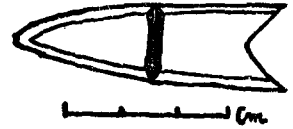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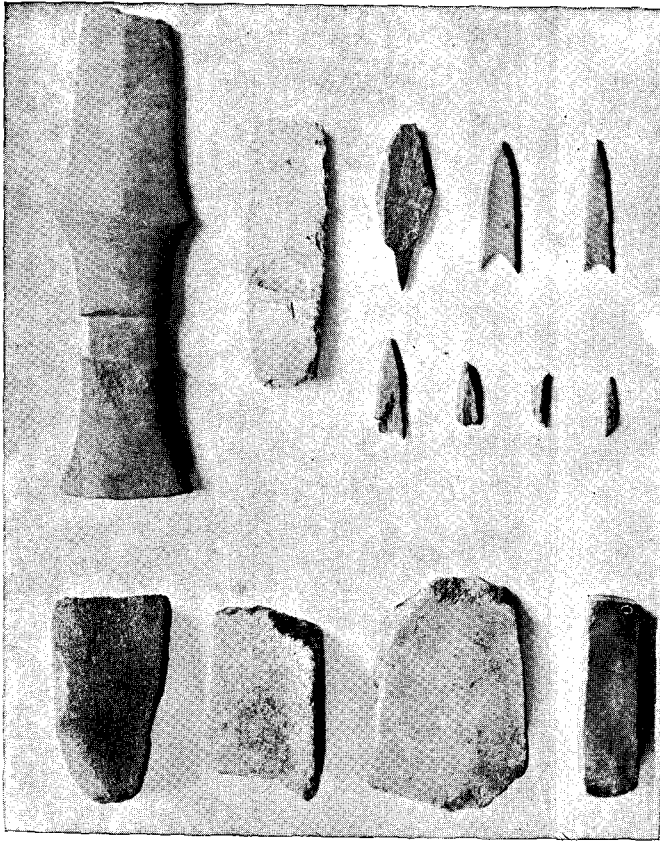


圖 3



圖 4



가지가 있다. 이 그룹의 토기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토기의 질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기 제법에 있어서 더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의 토기는 다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Ⅲ 맺 음 말

이상에서 말한 것이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부이다. 토기·석기등 생활 도구와 불 피운 노지(爐址)의 발견에 의하여 이것이 주거지였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둥 자리에 의하여 보면 그 주거는 대체로 타원형(橢圓形)이었던 듯 하다. 지면을 약간 파고, 타원형으로 기둥을 세워 지상에 간단한 지붕의 시설을 하였을 것이다.

이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마제 석점은 가장 표식적(標識的)인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완형에 가까운 석점은 칼날에 있어서의 능선(ridge)과 자루에 있어서의 단을 지은 수법은 동검을 모방한 것으로서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석점은 우리나라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어 그 제작 연대가 대체로 청동기 시대(금석 병용기)의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 유적에서 금속기(金屬器)는 발견되지 않았다. 화살촉이 다 금속제가 아니고, 돌로 만든 것이다. 화살촉은 금속기 시대에도 계속하여 석촉을 사용하였던 것은 다른 유적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와 같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석촉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저(基底, base)에 스템(stem)이 있는 것과 콘케이브의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북중국에서 남만주를 거쳐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며, 후자는 시베리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른바 북방문화 계통의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두 계통의 문화가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서로 접촉 혼합되었던 것이다. 한강 유역은 신석기 시대의 무문토기와 유문토기의 두 계통의 문화가 분포되어 있다. 명일리의 토기는 평평한 밑에 둥근 배, 무문등의 특징을 나타내어 북중국을 거쳐 전하여진 토기 문화임을 증명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토기는 태토가 대단히 성글고 소성도가 낮은 것임에 반하여 극소수이나 마 태토가 대단히 부드럽고 살이 얇은 토기 파편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두 가지 토기 제법은 그 발달 정도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유적의 주민이 태토가 성글 유치한 요법(窯法)의 토기와 함께 좀더 발달한 제조 기술의 토기도 사용한 것인지, 혹은 후대의 발달한 요법의 토기가 뒤에 이 유적에 섞여 들어온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유적의 예에서도 보면 대개 발달의 정도가 다른 토기가 한 유적의 같은 층위에서 발견되는 일이 많으므로 이 유적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석영(石英)·장석·운모 등이 많이 섞인 바탕흙으로 소성도가 낮은 토기 제법은 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법을 계승한 것이고, 부드러운 바탕의 흙으로 소성도가 높은 것은 발달한 요법이 수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법의 토기가 본래부터 같은 층위에 포함되었던 것이라면 이 유적의 하한(下限)을 좀 늦추어야 될 것이다. 이 유적에서는 짐승이나 고기의 뼈 또는 곡물(穀物)의 잔재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유적이 위치한 명일리는 한강으로부터 약 2·3 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낮은 구릉(丘陵)인 바, 지리적으로 보아 이곳 주민은 그 생활을 약간의 어로(漁撈)나 수렵에도 의존하였을 것이나, 주로 원시적인 전작(田作)에 의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나라에서 선사시대 주거지의 발견이 극히 드문데 비추어, 명일리 유적은 주거지로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금번 발견된 것은 단일 주거지이나, 아마 당시에는 인접하여 약간의 집단(集團)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筆者 高麗大學校 教授>